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9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 (1)

『죄 죽이기』 제9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1), 인쇄 116~130쪽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앞 장들의 '일반 지침'에서 '구체적 지침'으로 넘어간다. 제9장부터 제13장까지는 죄를 직접 죽이는 일 이전에 필요한 예비 지침이다. 그 첫째는 내 안의 어떤 욕망이 '치명적'이라는 징후를 보이는지 살피는 것이다. 치명적인 욕망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지 않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웬은 위험한 징후 여섯 가지를 차례로 든다. 오래 방치된 상습성, 죄와의 타협, 잦은 패배, 형벌이 두려워서만 하는 싸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완고함,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함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고한다. 이런 징후는 신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자라는 증거는 아니다.

📜 절별 정리

📜 1. 구체적 지침의 자리, 그리고 첫 번째 지침

앞 장에서 오웬은 죄악된 욕망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울 때 필요한 '일반 지침'을 다루었다. 이제는 그런 경우에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지침'을 준다. 구체적 지침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사전에 준비하는 예비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죽이는 일 자체에 관한 것이다. 9~13장은 앞의 예비 지침에 속한다. 그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 지금까지 위험한 징후를 보였는지, 치명적이라는 증표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그 욕망이 치명적이라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으니 특별한 치료책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오웬은 이 지침을 장 끝에서 다시 정리하면서, 어떤 귀신은 금식과 기도로만 나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1. 9~13장은 죄 죽이기 이전의 '예비 지침'
2. 첫 지침: 내 욕망의 위험 징후를 살펴라
3. 치명적인 욕망에는 통상적 방법이 안 통한다
4.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맞는다

> **마태복음 17:21**
> “이런 종류는 금식과 기도로만” — 어떤 욕망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비유 (개역개정 본문에는 없음)
>
> (없음)

📜 2. 징후 ① 욕망이 오래되어 굳어진 경우 (상습성)

어떤 욕망은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썩어 왔을 수 있다. 치열하게 싸워 죽이려 하지 않았거나, 그 욕망이 낸 상처를 고치지 않고 오래 방치했다면, 그 욕망은 큰 힘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오웬은 구체적으로 묻는다. 세상일, 야심, 심지어 공부 욕심에 빠져 하나님과의 교제에 필요한 다른 의무를 오래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더러운 생각으로 많은 날 마음을 더럽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오래된 욕망은 영혼의 모든 기능에 스며든다. 그래서 지성과 양심이 그것을 낯설게 여기지 않고,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지내게 된다. 오웬은 요셉이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 일이 이런 '익숙해짐'의 예인 듯하다고 짧게 언급한다. 이런 상태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죄의 지배'와 거의 차이가 없다. 또 오랜 세월 온갖 풍파와 말씀의 공격을 견뎌 온 욕망이 이제 와서 저절로 잠잠해질 리도 없다. 이런 욕망은 오래 살아온 집에서 '이제 내 집'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와 같아서, 쉽게 내쫓을 수 없다.

1. 방치된 상처는 곪고, 곪으면 위험하다
2. 오래된 욕망은 양심과 '친구'가 된다
3. 의식하지 못한 채 욕망이 뜻을 이룬다
4. 죄의 지배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 상태
5. 욕망은 저절로 죽지 않는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 오래 방치된 죄가 영혼을 썩게 함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창세기 42:15-16

요셉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함 — 죄에 익숙해져 의식하지 못하는 예

15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6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욕망이라는 것은 저절로 죽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언제나 점점 더 힘을 얻는다."

📜 3. 징후 ②-1 '나는 괜찮은 상태'라는 증거로 양심을 달래는 경우

둘째 징후는 욕망과 싸우지 않고 그 욕망의 은밀한 요청을 묵인하며 타협해 사는 것이다. 오웬은 그런 상태에 이르는 길 가운데 두 가지를 든다. 첫째 길은 죄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울 때, 죄를 죽이기보다 "그래도 내 영적 상태는 좋다"는 증거를 찾아내어 죄와 잘 지내는 것이다. 오웬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되새기는 일 자체는 좋다고 분명히 말한다. 성도의 의무이고, 성경이 권하며, 시험의 때에 적절히 쓰면 '은 쟁반에 금 사과'가 된다. 문제는 목적이다. "죄를 죽여라"라고 외치는 양심을 조용히 시키려고 은혜의 기억을 꺼내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죄를 감싸려는 필사적인 흉계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죄를 죽이는 대신 다른 증거로 멍에를 벗으려 한다면, 그 상처는 거의 고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찔린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로 마음을 달래고 악을 그대로 둔 것이 그 예다. 목마를 때 물 대신 술을 마시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는 하나님의 평안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 죄는 만족을 주는 척하지만 결국 영혼을 더 목마르게 만든다.

1.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의무다
2. 문제는 양심을 '달래려는' 목적이다
3. 피로 용서받고 영으로 죽이는 길을 피함
4.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위안
5. 죄를 하나님의 평안보다 더 사랑한다는 증표

시편 77:6-11

다윗이 주의 옛 인자하심을 되새김 — 경험을 돌아보는 일의 바른 예

6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9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10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11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고린도후서 13:5

자신을 시험하라는 명령 — 자기 점검은 성도의 의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잠언 25:11

“은 쟁반에 금 사과” — 적절한 때의 자기 점검은 유익하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 4. 징후 ②-2 죽여야 할 죄에게 '자비'를 베푸는 경우

둘째 길은 내 안에 남아 있는 죽지 않은 죄를 너그럽게 봐주고, 진심으로 죽이려 애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이 그 죄를 사랑하고 깊이 붙잡혀 있다는 증표다. 나아만이 “다른 일은 다 하겠지만 림몬 신전에서 절하는 이 일만은 용서해 주소서”라고 한 것처럼, 특정한 죄를 놓지 않겠다고 정해 두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과 모순되며 위선자의 증표다. 그런데 오웬은 하나님의 자녀도 사탄의 술수와 남아 있는 불신앙 때문에 이 속임수에 걸릴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경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핑계 삼아 죄를 붙들면, 육신은 더 대담해지고 성경의 자비 구절들을 비틀어 자기 목적에 쓴다. 이렇게 죄를 은근히 즐기고 용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것이며, 머지않아 사망의 문 앞에 설 것이다.

1. “이 죄만은 봐주세요”는 위선의 증표
2. 신자도 이 속임수에 걸릴 수 있다
3. 은혜를 핑계로 죄는 더 대담해진다
4. 자비의 말씀이 죄의 변명으로 악용된다
5. 죄에 대한 자비 = 복음을 빙자한 육신

> **열왕기하 5:18**
> 나아만의 “이 일만은” — 특정 죄를 남겨 두는 마음의 예
>
>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 **유다서 1:4**
>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 — 죄를 봐주는 것의 정체
>
>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로마서 6:1-2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 신자도 경계해야 할 유혹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시편 38:5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사람 — 이런 상태의 결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 5. 징후 ③ 죄의 미혹이 자주 이기는 경우

셋째 징후는 죄의 유혹이 자주 성공해서 의지가 대개 죄의 요구에 동의해 주는 것이다. 오웬이 말하는 '성공'은 겉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만이 아니다. 사정이 있어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더라도, 의지가 기꺼이 동의했다면 죄는 이미 이긴 것이다. 야고보가 말한 '죄가 장성한' 상태가 이것이다. 어떤 욕망이 영혼을 이 정도로 지배한다면, 그 상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만큼 악하다. 흔한 변명이 있다. "의도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랬다." 오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깨어 있어야 할 때 부주의하고 태만했다면, 그 부주의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악에 동의한 것이 '뜻밖'처럼 느껴지는 것 자체가 마음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한 결과다.

1. 행동하지 않아도 동의했다면 죄가 이긴 것
2. 의지의 동의 = '죄가 장성한' 상태
3. "나도 모르게"는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
4. 부주의도 하나의 선택이다
5. 뜻밖의 동의는 경계를 놓친 결과

>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 6. 징후 ④ 형벌이 두려워서만 죄와 싸우는 경우

넷째 징후는 오직 결과와 형벌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나 지옥이 무서워서 참는다면, 벌이 없으면 얼마든지 죄를 짓겠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은 죄를 밥 먹듯 짓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다르게 싸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 죄의 가증한 본성, 하나님과의 교제의 귀함을 알기에 죄 자체를 미워해서 싸운다. 요셉은 들킬까 봐가 아니라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며 거절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거룩함을 이루자고 했다. 지옥과 심판이라는 율법의 무기만으로 싸우는 사람은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버리고 죄를 억제하는 은혜에만 기대는 사람이다. 은혜에서 떨어져 율법의 쇠 멍에 아래로 돌아간 것이다. 바울은 신자가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니 율법적 동기만으로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더 강한 복음의 요새에서도 당신을 끌어낸 욕망이 율법의 요새쯤은 금세 무너뜨릴 것이다.

1. 벌이 없으면 지을 죄라면 이미 진 것이다
2. 성도는 죄 자체를 미워해서 싸운다
3. 지옥·심판만 남은 싸움 = 율법으로 후퇴
4.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5. 복음으로 못 한 일을 율법으로는 못 한다

> **창세기 39:9**
> 요셉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 사랑에서 나온 거절의 모범
>
>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7:1

약속을 가진 자로서 거룩함을 이루자 — 약속이 싸움의 근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로마서 6:14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 죄를 이기는 근거는 은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당신이 복음의 원리들을 가지고서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율법적인 동기들에 의거해서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 7. 징후 ⑤ 그 욕망이 하나님의 심판(징계)일 가능성이 클 때

다섯째 징후는 나를 괴롭히는 욕망이 하나님이 나를 완고하게 하신 심판, 적어도 징계의 벌일 가능성이 클 때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전 죄나 나태함, 어리석음을 바로잡으시려고 그들을 어떤 욕망의 괴로움 아래 두시기도 한다. 교회가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라고 탄식한 이유가 여기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징계인지 어떻게 아는가? 오웬의 답은 이 죄에 빠지기 전의 마음과 행실을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것이다. 그는 질문을 줄줄이 던진다. 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가, 절제 없이 살았는가, 회개하지 않은 큰 죄가 있는가, 받은 자비에 감사하지 않았는가, 환난의 목적에 응답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놓쳤는가, 세상에 영합해

있다. 이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진노의 폭풍 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니, 깨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1. 하나님은 자녀도 욕망의 괴로움 아래 두신다
2. 목적: 이전 죄·나태·어리석음을 바로잡기
3. 분별법: 넘어지기 전 마음과 행실을 살펴라
4. 새 죄 뒤에 해묵은 죄가 있을 수 있다
5. 해당되면 깨어 하나님을 부르라

> **이사야 63:17**
>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완고함 아래 두심
>
>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 8. 징후 ⑥ 하나님의 여러 치료에도 욕망이 살아 있을 때

여섯째 징후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어떤 욕망을 제거하려 일하셨는데도 그 욕망이 건재한 경우다. 이사야 57장이 이 상태를 그린다. 하나님이 노하여 치시고 얼굴을 가리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패역하게 자기 마음의 길로 갔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바로 다음 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이 그를 건질 수 있다. 하나님은 흔히 섭리 속에서 사람을 만나 마음의 악을 짚어 주신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겪은 일이 그 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으로 성령이 마음을 흔드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검으로 아끼는 욕망을 정면으로 치신다. 그런데 욕망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면 그는 주님과 이어진 이 동아줄들을 끊어 버린다. 깨달음을 얻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낸 상처를 욕망이 '치료'해 버린다. 이런 경고들은 헤아릴 수 없는 자비다. 그러니 그것을 버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그런 자를 아직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신다.

2. 하나님은 섭리·성경 읽기·설교로 죄를 짚으신다
3. 장악당한 마음은 그 동아줄을 끊는다
4. 경고는 진노가 아니라 큰 자비다
5.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 **이사야 57:17**
> 치셔도 자기 마음의 길로 감 — 치료를 거부하는 상태의 묘사
>
>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 **이사야 57:18**
> (오웬이 "다음 절"로 언급)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약속 — 주권적 은혜만이 소망
>
>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 9. 정리와 주의: 이 징후들은 '신자의 증거'가 아니다

오웬은 이 여섯 말고도 위험한 징후가 많다고 말한다. 이런 종류의 욕망에는 통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특별한 방법을 써야 하고, 그 첫걸음이 이 징후들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경고를 덧붙인다. 이 악들은 참된 신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내게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 나도 신자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간음했고 나도 간음했으니 나도 다윗 같은 신자라는 말이 된다. 로마서 7장도 마찬가지다. 거기 묘사된 거듭난 사람의 어두운 면이 내게도 있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오웬은 비유를 든다. "지혜로운 사람도 병에 걸린다, 그러니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지혜롭다"는 논리, 혹은 아름다운 사람에게도 흉터가 있다는 말을 듣고 흉터 많은 자기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이런 징후를 가진 사람은 "내가 신자라 해도 가장 비참한 자"라고 여기는 편이 안전하다. 평안을 원한다면 참된 신자임을 보여 주는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한다.

3. “다윗도 죄지었으니 나도 괜찮다”는 착각
4. 로마서 7장을 자기 위안으로 오용하지 말라
5. 평안은 참된 신자의 증거에서 찾으라

마태복음 17:21

금식과 기도로만 나가는 종류 —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정리

(없음)

로마서 7장

거듭난 사람의 내적 싸움 —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단정하지 말라

[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mortification)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거듭난 신자 안에도 여전히 남아 꿈틀거리는 죄의 성향.

죄악된 욕망(정욕, lust)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향해 마음을 끌어당기는 내적 충동. 성적인 것만 가리키지 않는다.

상습성(습관적 죄)
오래 방치되어 마음에 뿌리내리고 익숙해진 죄의 상태.

낮아짐(humiliation)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슬퍼하며 자기를 낮추는, 죄를 죽이는 통상적인 길.

취득시효
남의 땅을 오래 쓰면 소유권을 인정받는 법 제도. 오래된 욕망이 “여긴 내 자리”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빗댄 말.

율법적 동기 vs 복음의 병기
지옥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싸우느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약속과 성령으로 싸우느냐의 차이.

억제하는 은혜 / 새롭게 하는 은혜
죄가 밖으로 터지지 않게 막기만 하는 은혜와, 마음 자체를 바꾸는 은혜.

심판적 완고함(징계)
하나님이 이전 죄를 바로잡으시려고 사람을 어떤 죄의 괴로움 아래 두시는 일.

위선자
신앙의 겉모습은 있으나 특정한 죄를 놓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죄를 죽이기 전에 먼저 내 욕망의 '위험도'를 정직하게 진단해야 한다.
- 상습성, 타협, 잦은 패배, 두려움만의 싸움, 징계로서의 완고함, 치료 거부가 그 여섯 징후다.
- 죄를 이기는 동기와 힘은 율법의 위협이 아니라 복음, 곧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온다.
-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는 진노이기 전에 큰 자비이며,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있다.
- 신자에게도 있는 흠을 '나는 신자'라는 증거로 삼지 말고, 참된 평안은 참된 증거 위에 세워야 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8편 · 내 죄는 얼마나 위험한 단계일까 · 치명적인 징후 여섯 가지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